

타이, 의약품 특허 파기 강제면허 발급

에이즈 · 심장질환 치료제 복제약 생산 허용 ... NGP 환영에 제약 발끈

유명 의약품 특허에 대한 타이 정부의 잇따른 파기조치에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발끈하고 있는 반면 비정부 기구(NGO)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타이 보건부는 2월2일자로 Abbot의 에이즈 특허 치료제인 <칼레트라>와 Sanofi-Aventis 및 Bristol Myers Squibb(BMS)이 공동으로 특허를 보유한 심장질환 치료제 <플라빅스> 등 2개 의약품에 대해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강제면허(Compulsory Licence)를 발급했다.

타이 당국은 자체 생산을 하기 이전까지는 복제약을 수입해 환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국제사회에서 타이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타이 정부는 제약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2001년에 합의한 사항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WTO는 2001년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질병이 만연한 국가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특허 보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의약품 생산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면허> 발급 규정을 신설했다.

일부 NGO는 타이의 조치에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하고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MSF)의 엘렌 호엔 국장은 “전 세계에서 치솟는 의약품 가격 때문에 질병 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이의 조치는 무척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빈국의 의약품 공급지원에 나서고 있는 단체인 국제지식생태환경(KEI)의 제임스 러브는 “타이 정부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해야 될 일을 하려 애쓰고 있다”며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강제면허>를 발급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타이의 제약연구 · 생산자협회(PreMA)는 “(보건부의 조치에) 우리는 경악하고 있다”며 “외국계 제약기업들이 타이에 대한 모든 투자를 전면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고, “강제면허는 보건위기 사태를 초래할 때만 발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정에 120바트(약 3000원)인 플라빅스에 대해 복제약을 수입 또는 생산해 가격을 10분의 1로 대폭 낮춰 공급할 계획이다.

상구안 니타타야룸퐁 타이 보건안전청장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보건 의료비의 3분의 1은 수입 약품과 장비를 구입하는데 쓰이고 있다”며 “복제약을 공급하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05>